

저주에서 해방 (사도행전 8:1-8)

저주에서 해방이다. 우리가 누려야 할 아주 중요한 제목이다. 저주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하고 오히려 저주를 정복해야 할 것이다. 한주간동안 언약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세상은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것이 방향이다. 사실은 무슨 생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이 바라는 방향과 이유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볼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주 혼란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잘 모르고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 세상의 기준이 내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내가 향하여 살고 그러면 안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러면 안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고 답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유와 답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인생을 정복하는 귀중한 과정에 있어서 귀중한 질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만일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대단하다. 그 언약의 말씀은 평생을 두고 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유와 답이 되고 목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랬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딱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천명이 주어져 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는 천명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 천명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천명이 아니고 나의 천명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 천명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복할 것이다. 이 천명 하나 때문에,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정도가 아니라 모든 저주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뒤집어 줄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고 귀중한 답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사는 사람은 전부다 인생이 그 환경을 다 정복하였다. 그리고 전부다 사적적인 증인이 되었다. 사실은 간단하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줄 믿는다.

1. 저주에서 해방

누구나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 말은 저주에서 해방되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뛰어 넘을수 있어야 되고 통과할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다. 그냥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살면 되고 기도하면 된다. 진짜 된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상당한 증인이 있다. 많은 문제가 역전되어졌고 앞으로 계속 역전되어 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의 대명사이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앗수르에 망했다. 그 것이 BC 722년이다. 그래서 앗수르의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북 이스라엘에 풀어 놓았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 아이들 이 태어난다.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이 혼혈이라고 해서 아주 차별을 많이 했다. 아주 그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런데 이 땅은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그리로 안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간다. 이 땅에 이제 중직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거기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혼혈이라고 저주를 했는데, 예수님은 달랐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은 우리는 이들을 TCK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문으로 본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내가 너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다. 강도만난 너희를 구하려고 온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이다. 그런데 이 때 예수님이 많은 다른 예를 들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자신을 설명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것을 배경에 깔고 이야기 한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우물에 일부러 갔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기다렸다. 그리고 이미 이 여자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굉장한 제자였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이 많이 구원받았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뜻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건질 뿐 아니라 그들을 증인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뿐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대표된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나는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 받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바란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있을수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내 자신이다. 사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이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살아야 사람들이 살릴수 있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믿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운명을 뒤집는다.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가 뒤집을 수 있는 답은 딱 한 개가 있다. 그것도 모든 문제를 다 항상 뒤집는 답은 한 개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문제를 당해도 오히려 역전되어 축복으로 바뀌어 버린다. 참 놀랍다.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부족하지만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체험 많이 한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성경은 옛날 얘기 이렇게 배경에 깔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증인 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응답 받았다고 넘어가고 이 정도로 지나간다. 그것을 응답을 못 받고 그 문제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결국은 누가 봐도 저주, 이렇게 되어 버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정말로 힘든데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수 있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심어야 한다. 이것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다. 여기에 믿음이 없게 하는 것은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사단이다. 이 눈이 열린 것을 보고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왜 안 믿는가? 이것은 다음 이야기이다. 근본은 사단이다. 왜 나는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나? 영적 문제이다. 내 실수가 아니다. 응답을 계속 받는데도 이런 결론, 이런 정리가 안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눈이 확실히 안 열려서 그렇다. 그리스도는 모든 운명을 뒤집어 버린다. 맞는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뒤집어 버린다. 틀림없다. 이것을 계속 언약으로 잡는 자는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그리스도 메시지를 계속 말하는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잘 하는데 진짜 믿나? 이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증거가 없는 사람은 왜 증거가 없는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이유는 이거 하나다. 이 언약으로 살면 누구든지 증거가 오게 되어 있다. 크든 작든 증거는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증거 가지고 싶기도 하다. 계속 고백하고 언약 잡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음으로 이 저주를 꺾고 운명을 뒤집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간단한 단어인데, 자주 듣는 것인데, 굉장히 근본적인 단어다.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운명 뒤집어야 한다. 영계의 저주를 당한 인간에게 답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깨는 무기는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하나 뿐이다. 이 기도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뛰어 넘어서 보좌의 축복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시공간 초월이라는 느낌이 있으려면 대단한 기도의 세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깊은 기도의 세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237의 빛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으로 빛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인생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인생이 저주에서 나온다. 인생, 운명 뒤집어라. 그냥 해방만 되어버리는게 아니라 되받아쳐서 정복해야 한다. 엘리사는 이 언약 누리면 된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 하나만 요구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 필요 없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농기구 다 불살라버렸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다. 아주 확실하게 답 나고 선 그어버렸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잊지 말라라. 저주에서 해방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린 자는 당연한 것이고 정복한다. 그래서 인생 회복되고 정말 증인되기 바란다.

2. 흠어진 사람들

초대교회 박해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많은 나라로 흠어졌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박해가 심해서 사도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밖으로 흠어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자연적으로 거기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 참 놀라운 일이다. 천주교 박해때도, 종교개혁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때로는 국가 권력이 박해를 많이 했다. 이시대의 대표적인 것

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한국도 이런 박해를 받은 나라중에서도 뺄수 없는 나라이다. 그런데 어두운 시절이었었는데, 이런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거기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흩어진 자들에 대한 예가 너무나 많이 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 유명한 사람이다. 시대적인 중, 사도바울을 살렸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우리는 아들처럼 되겠다는 기도제목 가진 사람도 많다. 로마의 법 때문에 쫓겨났는데, 거기서 사도바울 만났다. 인생을 더 이상 어떻게 복을 받을까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 바벨론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것은 흩어진 정도가 아니다. 강제로 끌려갔는데,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다 되었다. 요셉은 팔려갔지만 노예로 흩어진 것 아닌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흩어졌다. 본래대로 하면 자기 고향에 살고 싶지 않았겠는가?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최고로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민을 왔다. 우리는 박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오지도 않았다. 우리는 노예가 된 적도 없고 깨끗하게 이민을 왔다. 그런데 우리도 흩어진 사람들이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보낸 나라에서 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경에 흩어진 사람들하고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가장 귀중하게 보이는 사람일 것이다. 그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살려고 흩어졌다. 하나님 눈에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위에서 예를 든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굉장한 귀중한 사람들이다.

흩어진 사람들의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가장 중심되는 복음의 나라가 되어야 할 미국인데, 미국에 복음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꾸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바른 소리를 못하니깐 사단이 득세를 하고 있다. 미국 역사가 전에는 안그랬다. 부족해도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 있을 때에는 사단이 꺾소리를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득세를 해서 그들의 문화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의 램넛들이 당한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안하고 복음만 바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킨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왕 한사람만 우상숭배 안하고 언약의 피제사를 지키는 그 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셨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다. 쳐들어 오는 나라가 강대국이어도 이스라엘에게 졌다. 한두건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때에도 죄 때문에 망한다고 안하고 의인 열명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교회에 바른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는 교회인가? 얼마나 귀한가?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미국 교회에 전달한다면 이것은 시대적인 일이다. 미국교회가 어느 나라에 복음을 받는가? 받은 적이 없다. 안 받는다. 나라도 일등이고 힘도 일등이고 신학교도 일등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이 없다.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복음화를 하는 교회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장 귀중한 교회이다. 미국 주류교회에도 복음이 바르고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는 숫자가 줄어가고 신학교도 숫자가 줄고 힘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전도가 안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목사 숫자가 주는것도, 70억 인구가 전보다 목사이면 전세계가 축복, 난리 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해서 먹고 살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이다. 전보다 목사되어도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 더 좋아한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뭐가 걱정인가?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살아있는가? 참 우리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밖에 나가 전도해보면 이분이 복음을 바로 섰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는 없다. 그리스도 삼십도 말 잘 못한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는 왜 받고 가인은 안 받았나? 대답 못한다. 한인타운에 십여년전에 올림길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좀 했는데, 60-70명중 바른 대답한 사람 세명 네명이었다. 그다음에 어쨌서 그러냐고 더 물어보면 말 못한다. 단답형으로 답을 하는데 설명을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은 가인은 정성이 없었고 아벨은 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니 완전히 종교이다. 교회에서 계속 정성껏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응답하고, 기도 간절히 하면 응답받고, 이러니 언약보다 이런게 앞서 있는 것이다.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제가 미국분들하고 성경공부하면서 느낀것도 다 그렇다. 이 복음이 죽어가는 시대에 세계에서 최고로 중요한 미국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냐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한 복음 알게 하시고 미국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이다.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복음인데, 이 놓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열면 되는데, 지금 느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 같다. 미국 교회의 문을 여시는게 아니냐 싶고, 그리고 아직도 미국

교회에 많은 제자가 뭔가 몰라서 갈등하는 제자가 많이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국 목사님 제자들을 유난히 많다.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을 누리는데 기도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근본 질문부터 해봐야 한다. 양심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성경에 바른 소리를 하니깐,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미국에 진짜 심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백년의 응답을 받는다. 백년 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연결된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램넛트 아이들 살려야 한다. 다 아시아시피 거기는 중독, 영적문제, 아주 무더기로 있다. 모든 어른들은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안그렇다.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야 한다. 복음이 자리를 잡으면 절대 영적 문제 안 걸린다. 중독으로 안간다. 그 복음으로 인해 소망이 있는데 왜 중독으로 가는가? 중독이나 영적 문제는 전부 상처나 내면으로부터의 복음이 없어서 거기서 진 것이다. 복음을 딱 심어야한다. 아이가 달라진 것을 어른들이 볼 것이다. 그러면 어른들이 회개한다. 회개를 안한다 해도 램넛트가 살아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망진창인, 표현이 죄송한데, 정말로 어려운 그 지역의 영적 문제, 중독, 그런것들이 램넛트 아이들이 일어서버리면 사회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를 이 일 하라고 여기 보낸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미국 교회에 목사님들 중에서 이 복음에 찬성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미국은 뭐라해도 세계 일등이다. 미국의 영적 문제가 전 세계에 연결되는 것이다. 아프리카도 미국의 영적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센터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번 해볼만 한 것이다. 세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만 찾으면 된다. 미국 교회나 미국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을 제시해서 반응하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복음을 제시했는데 반응 없으면 하나님 계획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다. 거기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가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쉬운 것이다. 우리 이것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언약 잡아야 하고 가슴에 담아야 한다. 장로님이 오늘 과테말라 집회 기도하셨다. 거의 25명 생각했는데 50명 가까이 될 것 같다. 그분들 자체가 중요하다. 나는 그분들 자체를 위해서 간다. 그런데 하나 더 가지고 간다. 이분들이 복음 듣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한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바울은 항상 그렇게 했다.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후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리카르도 목사와 마쓰다 목사, 레이크 전도사, 다민족 팀, 미국 목사님들과 연결이 일어나고 있다. 김태호 장로와 김동미 전도사를 통해 연결된 분, 다운타운에서 홀리스 사역하는 목사님 부부와 부목사를 만났다. 이 부목사는 이지혜 집사님에게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한다. 이 분이 우리가 하려는 것과 방향이 같다고 해서 화요일 집회에 와서 해달라고 해서 가게 된다. 우리는 지금 영어가 준비되거나 통역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다. 그 담임목사님이 20년 마약하다가 어느날 돌아온 것이다. 어느날 밤에 하나님 만났는데, 그 다음날부터 싹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리카르도 목사가 거기 있었는데,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대화가 막 통하는 것이었다. 리카르도 목사가 7년인가 했는데, 어느날 날라가버리고 모든 것이 빛이 나고 사람이 다 바뀌어 버렸다. 이리다 보니까 리카르도 목사교회에는 이름도 같고 히로뽕 25년 했는데 하루만에 끊어버린 사람도 있다. 실험도 해봤다는 것이다. 히로뽕 주사를 했다는 것이다. 아무 효과가 없어서 진짜를 달라고 해서 한번 더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 때 깨달았다. 하나님이 고쳤구나. 그리스도. 이런 증거와 함께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보다 더 의미있는 일 없고, 우리가 만일 미국교회에 복음 전달해서 참복음운동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보다 귀한 사람 없다. 의미있지 않은가? 기도 한번 해볼만 하다. 쉽다. 왜 쉬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습도 많이 해봤다. 우리는 개개인이 다 연습도 했잖나? 나는 개인적으로도 연습 많이 했다. 왜냐면 답을 줬으니까. 과테말라에서도 이거하고 알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미국 다 같으니까 상관 없다. 내가 창세기를 한번 책을 써봐야 겠다 생각해서 정리해 놓은 적이 있다. 아직까지 책은 못 만들었다. 보니까 고칠게 많아서. 이번에 가면 창세기를 할건데 써놓은 것 요약하고 있다.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80%, 90% 이상의 미국 목사들은 뒤집어버릴 것이다.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늘 듣는 소리이다. 맨날 듣는다. 구약과 신약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남은 것은 기도이다. 마음을 담기 바란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 누리고 승리하는 것이다. 모든 저주를 내 앞에 무릎 꿇려야 한다. 그리고 모든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축복을 누리야 한다. 하나님의 큰 언약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